

대주그룹 회장 영장 청구...지역경제 충격 대형프로젝트 무산 위기

세계 최대 조선소 건설·J프로젝트 물거품 우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대주그룹이 추진해온 전남지역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주그룹은 산하 대한조선의 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지난 2004년부터 광주·전남경제를 견인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건설프로젝트를 해남군 화일면에 추진해 왔으나, 그룹 총수가 구속될 경우 추가 도크건설 및 수주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도는 대한조선이 본격 가동되는 2009년부터 3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로 인해 사실상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되고 연간 7조원에 달하는 매출 발생과 함께 협력업체들의 입주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

으나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골드만삭스 등 10여개 국내외 투자기관들과 진행중인 6천억원의 투자유치는 물론 덴마크사와의 선박용 엔진공장 양해각서 추진, 중국 조선소 프로젝트 등도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핵심사업인 J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주는 J프로젝트 조성에 나선 개발사업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주건설(자본금 200억원)을 구성, 참여하고 있으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사업 전반에 큰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7개 사업분야에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주그룹이 뿌리째 흔들릴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 재계와 지역민들은 충격과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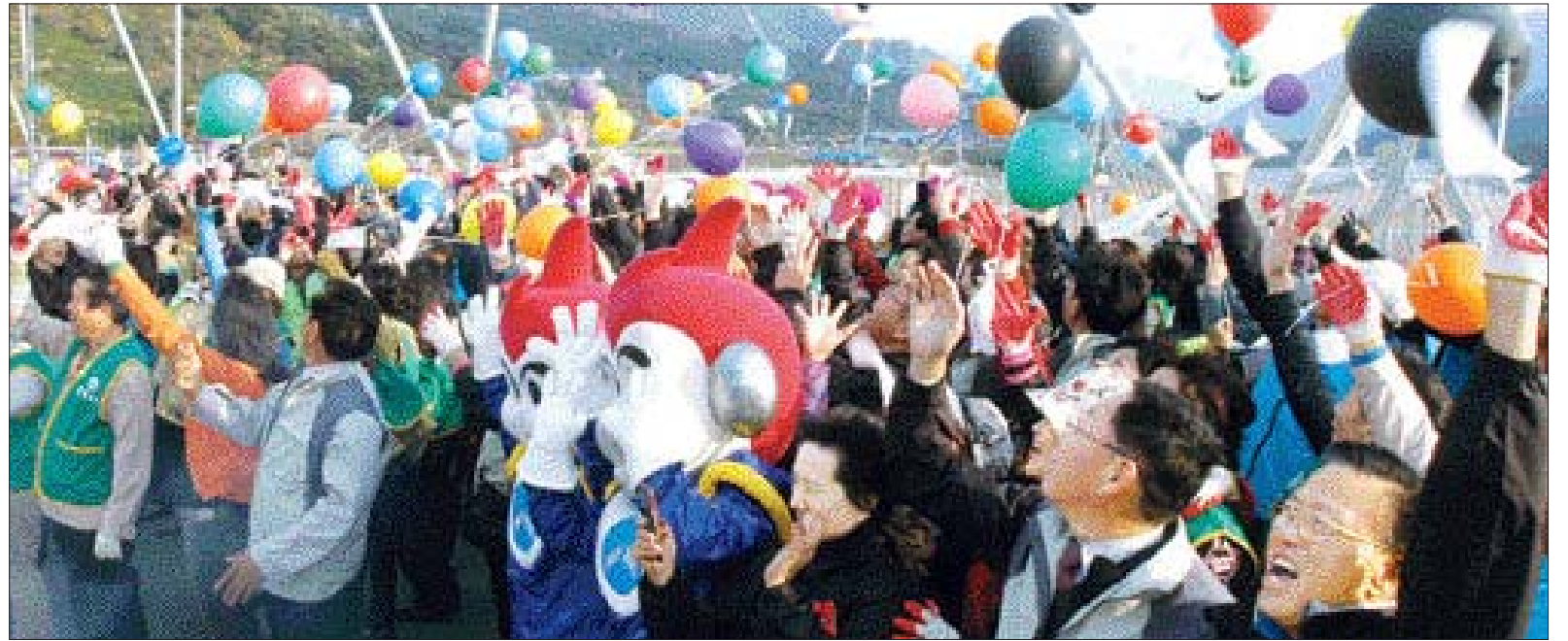
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천여명에 달하는 계열사 근로자의 실업문제, 그룹 총여신 6조4천억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 1천500여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인해 금융·건설권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대주그룹은 국제청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로 자금난이 심화되자 대한화재와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그룹 총수가 입건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대주그룹 관계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 및 주요 자산매각, 외자유치, 금융기관과의 협상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그룹 총수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룹 총수의 부재는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그룹 파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영·호남 공명선거 기원

제17대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8일 전남과 경남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 300여명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구례~하동 남도대교에서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풍선에 적어 날려보내고 있다. 전남·경남선관위와 전남·경남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들은 이에 앞서 하동 화개장터에서 ‘공명선거 기원,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경남 하동=최현배기자 choi@

전남 미래 가를 운명의 레이스 시작됐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D-8 여수시 오늘 출정식·내일 道民 한마음행사

전남의 미래를 결정짓고 한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운명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5면>

오는 27일 새벽 3시(한국시간)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에서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될 여수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와 전남도·여수시는 이번주 중 각자 총회 출정식과 유치 성공 기념행사를 갖는 등 마지막 결의를 다지게 된다.

여수시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오현섭 여수시장과 78명의 BIE총회 참가단, 국민응원단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표단 출정식을 갖고 2012 여수엑스포 유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또 20일에는 초·중·고등학생들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시민들이 나무판에 박람회 유치 소망을 적는 ‘소망의 벽 만들기’ 행사를 갖는 것을 비롯, 22~26일 매일 정오에 10초간 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사이렌이 시 전역에 울려 퍼진다. 여수시는 26

일 오후 7시부터 개최지 결정일인 27일 오전 3시까지 시청 현관 앞과 박람회 홍보관 앞에서 철야 응원전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재철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42차 BIE총회 리허설을 가진 데 이어 해수부 현관 앞에서 유치성공 출정식을 갖는다.

전남도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청 운선도 홀에서 박준영 지

사, 도내 22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각계 각종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행사’를 펼친다. 이날 행사는 여수 엑스포 유치 기원 희망의 꽃밭 점등식, 2012년 풍선 날리기, 유치 성공 기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22개 시·군 대표로 구성된 오토바이 홍보단이 유치 기원 퍼레이드를 벌인다.

한편 제142차 BIE총회 한국 대표단은 21일 낮 12시 30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출국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주 상의·경총 “지역사회 파장 고려...불구속 선처를”

대주 협력업체도 호소문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등 지역경제계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을 18일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지역경제에서 비중

이 큰 대주그룹이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관련기업의 연쇄도산과 입주대기자 등의 가계경제 파탄이 예상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허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광주·전남경총은 “대주건설이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로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해 자구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1천500여개의 대주건설 협력업체도 이날 “금융권이 대주건설에 대한 어음결제 동결함으로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지 못해 협력업체들이 중대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대주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허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 52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관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 문의: 10621220-0541

BBK 김경준씨 횡령혐의 구속 이명박 의혹 본격 수사

김경준(41)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BBK 회사돈 횡령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

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18일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 구속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는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

인다. <관련기사 4면>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증권계좌 38개를 동원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가장 매매나 고가·허위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또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가공의 펀드를 통해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면서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허

위사실을 유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구속수감됨에 따라 이 후보가 관련됐다고 정치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 규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감사드립니다
MUDEUNG SAN CENTER CLUB
무등산천후지킴이
www.mudeung-san.com